



2025년도 오픈도어선교회

전 세계 현장 사역 보고서

서론

우리는 2025년을 돌아보며 전 세계의 수많은 박해받는 신자들을 섬길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신적인 현장 사역자 팀을 통해 약 70개국의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개발 사무소의 동역자들은 기도와 기금을 모금함으로써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심화된 한 해였습니다. 도전과 장애물이 새로운 수준으로 치솟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종종 가장 불안정한 국가에서 사역합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결과들은 수많은 노력의 결실이며 결코 쉽지 않은 도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안정함이 거의 일상이 된 상황에서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보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역의 서약과 리더십, 직원, 그리고 동역자들의 헌신 덕분에 박해받는 교회를 계속 지원하고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섬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고난과 심한 박해에 직면한 이들 곁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박해 동향, 우리의 프로그램 발자취, 박해받는 교회에 제공된 지원 혜택¹ 및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성과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 전략적이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단행한 조직 및 프로그램적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성찰과 주요 교훈을 나누며 마무리됩니다.

이 보고서를 읽을 때, 격려와 기도, 성경, 훈련 과정, 장학금 등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수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현장과 개발 사무소, 그리고 글로벌 오피스에서 수고해 준 모든 동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에카테리나 P. (Ekaterina P.)

¹ "혜택"은 당사의 사역 프로그램을 통해 박해받는 교회에 제공되는 지원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선교회로서 당사는 데이터의 품질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몇 년 내에 수혜자 수를 포함하여 더욱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박해 동향 및 발전 사항 (Persecution Trends and Developments)

2025년을 돌아볼 때 강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수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세계 질서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글로벌 강대국들이 있었으나,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요하다고 느낄 때 힘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해받는 교회와 연계된 주목할 만한 개입 중 하나는 2025년 12월 나이지리아 북부의 이슬람 극단주의 캠프에 단행된 로켓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와중에 더 많은 전쟁이 에스컬레이트(고조)되었습니다. 2025년 가자지구 위기는 가자지구 대부분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는 참상을 보였고, 이는 그곳의 소수 기독교인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위기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확대되었고, 급기야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프리카가 재산 파괴, 납치, 살해 등 폭력 사건의 수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감시 강화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모퉁이마다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국가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의 휴대전화 등록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신앙을 지키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들도 자국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방식을 배우는 데 적극적입니다.

2025년의 주요 글로벌 트렌드는 다섯 가지 핵심 테마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1. 폭력의 심화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심각하고 악화되는 폭력

아프리카의 불안정성과 지하드(이슬람 성전)의 확장은 2025년 기독교인들에게 아프리카를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2022~2024년 보고 기간 동안 보고하람, 풀라니 무장세력, ISIS 연계 조직에 의해 약 9,814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살해, 강제 이주, 납치, 교회 공격이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DRC),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케냐 전역**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사헬 지역은 취약한 정부와 빈곤을 틈타 ISIS 및 알카에다 연계 세력의 극단주의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2. 권위주의의 확장 — 권위주의 부상 및 국가 통제 강화 (중앙아시아, 중국, 중동, 라틴 아메리카)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는 박해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국가들은 감시를 확대하고 종교 모임을 제한하며 반대 의견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급습, 감시, 기독교 활동을 억압하는 새로운 법안 제정을 포함해 제재를 급격히 강화했습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세계 박해 국가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7계단**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온·오프라인 감시를 고도화하고 이념적 통제를 강화했으며, 2025년 새로 도입된 성직자 관리 규정에 따라 온라인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란**은 개종자들과 가정교회에 대한 심각한 탄압을 지속했습니다. **쿠바, 니카라과** 및 기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목회자에 대한 괴롭힘, 급습, 투옥, 교회 폐쇄를 늘렸습니다.

3. 대규모 강제 이주 — 전쟁, 극단주의, 국가 박해로 인한 발생

극단주의 폭력과 국가 구조의 붕괴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격변은 대중 전체를 휩쓸어 버리지만, 무질서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소수자라는 신분이나 '이방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박해에 배로 취약해지며 표적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2025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600만 명의 기독교인이 강제 이주 상태에 머물러야 했으며, 수천 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예멘 같은 중동 국가들은 전쟁, 극단주의, 국가 붕괴로 인해 유서 깊은 고대 기독교 인구를 계속 잃고 있습니다.

4. 종교적 민족주의 — 개종 금지법 및 민족주의 운동의 심화 (인도 및 남아시아)

종교적 민족주의(특히 힌두 민족주의)는 인도의 가장 큰 박해 동력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네팔과 부탄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이 **하루 평균 2건꼴로** 기록되었습니다. **인도 내 12개 주**에서 시행 중인 개종 금지법은 차별을 강화하여 군중과 지역 당국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남아시아, 특히 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주와 마니푸르주의 기독교인들은 높은 수준의 괴롭힘, 체포, 교회 파괴를 경험했습니다.

5. 디지털 감시 및 AI 기반 박해 — 기독교 사역 통제의 새로운 개척지

디지털 억압은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박해 형태입니다.

기술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온라인과 모임 감시에 사용되는 안면 인식 시스템 모두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감시 공포**를 보고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 전역에서 목회자 추적, 온라인 예배 감시, 사적인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디지털 감시가 확장되고 있음이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별 세부 성찰 (Regional Reflections)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AFSLAB)

수단, 나이지리아, 말리, 콩고민주공화국(DRC) 동부 등은 높은 수준의 불안정과 갈등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재산 파괴, 납치, 살해 등 전 세계 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합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폭력이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특히 서아프리카 국가들(코트디부아르, 기니, 토고, 베닌)에서 아프리카 전통 종교(ATR) 추종자들에 의한 사건이 점점 더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박해 관련 사건 5건 중 1건이 ATR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박해는 심각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7억 2,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14개 국가는 누적 폭력 점수가 최대 가능 수치의 88%에 달해, 10년 전의 49%와 비교해 크게 치솟았습니다. 폭력 사건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살상과 강제 이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박해는 주로 마약 카르텔의 조직 범죄에 기인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는 니카라과, 쿠바 같은 국가의 기독교인들이 처한 곤경에 대해 언론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과 멕시코, 콜롬비아 기독교인들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더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MENA 지역은 여전히 **전쟁과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가자지구의 하마스 및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이란 공격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예멘 역시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불안정은 기독교인들의 취약성을 가중시켰고,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팀의 운영과 현지 박해받는 교회와의 파트너십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서구의 '동맹'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지속되는 폭력과 만행에 침묵하는 한 이 지역 기독교인들을 향한 반발과 역풍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 퇴진 이후 헌법 개정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새로운 법안이 초안 작성 중이며, 이슬람 정부는 샤리아(이슬람법) 요소를 더 많이 편입시키려고 압박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기독교인에게 우호적인 척하면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동안 **PSW(특정 보안 지역)**의 전체주의 정권은 신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괴롭힘을 늘렸습니다. 보고된 사건이 47% 증가(97건에서 143건으로)했으며, 총 체포 건수는 254건이었습니다. 단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된 사례도 21건에 달했습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신자(BMB)들의 처지는 모든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여전히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들은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모리타니 및 아라비아반도 국가들에서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시 방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BMB 가정 사역 모임은 단속과 체포 위험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1 지역 — 중앙아시아, 걸프 및 동남아시아 소지역 (Asia 1)

- 2026년 세계 박해 국가 순위(WWL) 데이터와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특히 **개종자들과 농촌 지역 신자들**)은 교회 생활, 제자 양육, 공동체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지속적이고 종종 심화되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의 지배적인 트렌드는 폭력 증가, 개종자에 대한 적대감 심화, 교회 모임 제한, 법적 규제 강화였습니다.
- **중앙아시아** 전역의 박해 패턴은 국가의 통제, 지역 사회의 적대감, 개종자에 대한 압박으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종교법 도입은 엄격한 등록 요건을 부과하고 미등록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정부의 감시 강화와 더불어 폭력 사건이 23건에서 52건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은 매우 높은 수준의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미등록 교회들은 특히 급습, 벌금, 체포에 취약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교회 활동의 세부 사항을 밝히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일부 개종자들은 가족들에 의해 오랜 기간 감금되거나 매를 맞고 공동체에서 쫓

겨나기도 합니다.

- 공식적으로 세속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국가 당국은 기독교 세례를 복음 전파 및 개종과 자동으로 연관 지으며 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세계 박해 순위 39위인 **타지키스탄**은 연말에 이르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최소 20명의 개종자가 가족과 지역 공동체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수많은 폭력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채 묻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동남아시아 소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가 가장 가시적인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 **방글라데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77건의 사건을 기록했으며, 무슬림 배경 개종자(BMB)를 향한 사회적 압박과 표적 공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중 24건은 노골적인 살해 협박을 받은 90명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16건의 사건에서는 최소 20명의 신자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 **스리랑카**: 불교 승려나 마을 주민들에 의해 예배 모임이 방해받은 14건의 기록을 포함해 총 48건의 사회적 박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정기적인 교회 리듬을 약화시켰고, 특히 불교도가 대다수인 농촌 지역의 회중들이 더 조심스럽게 활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40건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일부는 종교 모임에 대한 반복적인 방해와 관련이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이 기도원이나 수련원 시설을 파손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해로 인해 많은 교회가 은밀한 모임이나 가정 기반의 친교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 세계 박해 순위 8위인 **파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박해를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아시프 마시(2025년 5월)와 술레만 마시(2025년 1월)의 살해 사건과 같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살인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종교적 폭력은 대체로 제지되지 않고 있으며, 기독교인의 가정과 교회에 대한 군중의 공격 및 기물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법은 박해를 더욱 부채질합니다. 2025년 3월 온라인 콘텐츠로 인한 아르살란 길의 체포와 자파르 바티 목사가 13년의 투옥 끝에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건은 법적 구조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교회의 활동을 억압하는지 보여줍니다.
- 2025년 내내 11위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의 박해는 극단적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이슬람 의식 참여를 거부하거나 단지 기독교인으로 식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고문, 협박, 주택 급습, 강제 이주에 직면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완전히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현지 네트워크는 생존을 위해 중요한 긴급 지원, 재배치, 재정 원조,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아시아 2 지역 — 남아시아, 동아시아, 기타 영토 (Asia 2)

- 여러 국가에 걸쳐 기독교인에 대한 압박이 매우 높은 수준(평균 세계 박해 순위 점수: 77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가장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지배 정권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철저한 이념 통제를 집행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이 적발될 경우 처형되거나 종신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이념적 통제가 확대된 **중국**에서는 당국이 미등록 교회에 대한 급습을 강화하고 디지털 감시를 굳혔으며, 미성년자의 종교 활동 참여 금지를 지속했습니다. 동시에 교육과 종교를 포함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공산주의 가치를 주입하려는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의 디지털 규제 확대로 더 많은 목회자가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었고 온라인 사역이 축소되었습니다.
- **인도**는 지속적인 적대감을 견뎌냈습니다. 2026년 WWL 보고에 따르면 1,6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재판 없이 구금되었으며, 이는 여러 주에서 개종 금지법이 지속적으로 오용되고 군중 폭력이 묵인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군중 폭력, 개종 금지법, 정치적 양극화는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2024년 선거 이후 집권당 (BJP)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잃었음에도 기독교인들의 상황 개선 기대감은 꺾였습니다. 현장 보고에 따르면 2025년에 3,200건 이상의 기독교인 신문 및 구금이 발생했습니다.
- **미얀마**의 장기화된 무력 충돌은 2025년에 더욱 고조되어, 특히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친(Chin)주, 카친(Kachin)주, 카야(Kayah)주의 기독교인들이 군사 급습, 교회 방화, 강제 이주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더 많은 교회가 폭격을 당하거나 몰수되었고, 최소 1,250명의 기독교인이 국외로 강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내 실향민(IDP)이 된 기독교인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전체 실향민 수가 최대 300만 명에 달하므로 그중 기독교인의 수는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 **네팔**에서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 힌두 민족주의 선동이 커지면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목회자와 개종자들에 대한 괴롭힘이 심해졌습니다.
- **라오스와 베트남**은 국가가 승인한 종교 구조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감시, 체포, 전통 의식 참여 강요에 직면하는 엄격히 통제된 환경이었습니다. 라오

스 당국이 신자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베트남 보안군이 가정교회 모임을 해산시키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라오스는 점수가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압박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72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부탄**은 개종자들을 표적으로 삼은 더 많은 폭력 사건을 보고했으며, 학교에서 기독교인 학생들이 불교 의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 **필리핀**의 전반적인 환경은 개방적이지만, 무슬림이 대다수인 민다나오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지역 사회의 압박과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샤리아 법원의 확장은 현지 이슬람 기관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들을 위태로운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지원 혜택 (Benefits)

지역별 수혜자 제공 혜택 비교 (2025년 vs 2024년)

지역 (Region)	2025년 계획 (Planned)	2025년 실제 집행 (Actual)	계획 대비 실제 변동률 (%)	전체 실제 집행 중 비중 (%)	2024년 실제 집행 (Actual)	2024년 전체 중 비중 (%)	2025년 vs 2024년 변동률 (%)
아시아 1 (Asia 1)	1,194,967	1,195,087	0%	19%	2,625,552	28%	-54%
아시아 2 (Asia 2)	464,413	472,077	2%	8%	568,044	6%	-17%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389,528	386,019	-1%	6%	583,912	6%	-34%
중동 & 북아프리카 (MENA)	2,784,531	4,109,586	48%	67%	5,779,829	60%	-29%
글로벌 합계 (Global)	4,833,439	6,162,769	+28%	100%	9,557,337	100%	-36%

(주: 중동·북아프리카 및 아시아 1 지역의 성경 훈련 혜택 중 상당 부분은 온라인 방식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25년에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에 6,162,769건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계획보다 28%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구현 도중 승인된 대규모 구호 프로그램들이 초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산 감소로 인해 고정 비용(임대료, 급여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2024년)와 비교했을 때는 제공된 총 혜택 수가 36% 감소했습니다.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곳은 아시아 1 지역(-54%)이며, 그 뒤를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34%), 중동 및 북아프리카(-29%), 아시아 2 지역(-17%)이 이었습니다.

아시아 1 지역 내 중앙아시아에서는 수량보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다시 맞추면서 카자흐스탄(-68%), 아제르바이잔(-66%), 러시아 연방(-88%)의 지원 혜택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의 단기 활동보다는 장기적인 개입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에 있어 2025년은 새로운 주기의 첫해였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주기는 새로운 목표 지역, 타겟 그룹, 활동, 교회 및 현지 협력 동역자들과의 연결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브루나이(-76%), 파키스탄(-60%), 방글라데시(-34%), 말레이시아(-41%), 스리랑카(-23%)가 이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2 지역의 감소는 주로 프로그램 주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주기 말기에는 수혜 제공 물량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사역 활동을 축소했습니다(-76%). 미얀마의 자연재해는 정상적인 활동의 중단과 위기 구호로의 재집중(-37%)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도는 구조조정 과정과 문서/물품 배포의 67% 감소로 인해 수혜자들에게 제공된 혜택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14% 감소했습니다.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AFSLAB)의 경우, 볼리비아에서의 사역을 중단했으며 콜롬비아(-54%)와 베네수엘라(-68%)에서는 아동 대상 사역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완전히 채택됨에 따라, 다가오는 해에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지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23%)는 2025년의 예외적인 경우로, 구호 프로젝트 덕분에 더 많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동역자들과의 운영상 도전 과제들로 인해, 중앙아시아 소지역의 두 국가(카메룬, 차드)의 데이터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2025년 하반기의 지원 혜택 데이터를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제공된 지원 혜택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소말리아(-75%), 토고(-65%), 나이지리아(-45%), 코트디부아르(-45%), 에티오피아(-33%), 케냐(-31%)입니다. 이 지역은 "디지털 발자국(영향력)"을 확대하여 온라인 지원 혜택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288%)를 낳았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의 경우 가장 가파른 감소율인 -68%는 2024년과 비교해 지역

프로그램(주로 온라인)에서 제공된 혜택 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현장 사역 국가들에 더 가까이 가져가기 위한 전환기적 전략 때문입니다. 시리아에서의 사역 운영은 현지 동역자들의 인력 문제로 인해 거의 3분의 1(-28%) 감소했으며, 정권 교체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직원 이직이 발생했습니다.

총 수치에서의 감소는 제한적이지만, 모로코, 모리타니, 알제리, 튀니지의 지원 혜택 제공 역시 감소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성장하고 있는 무슬림 배경 개종자(BMB) 운동을 강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65%), 이집(+62%), 예멘(+49%), PSW(+42%)는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들이며, 요르단(+40%)과 리비아(+3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역 유형별 제공 혜택 분석

사역 유형 (Ministry Type)	2025년 계획	2025년 실제	계획 대비 실제 (%)	전체 증비증 (%)	2024년 실제	2025 vs 2024 변동 수치	2025 vs 2024 변동률 (%)
옹호 사역 (Advocacy)	240,954	356,700	48%	6%	542,853	-186,153	-34%
성경 훈련 (Biblical training)	2,589,677	3,782,086	46%	61%	5,767,244	-1,985,158	-34%
문서/물품 배포 (Distribution)	1,371,810	1,220,087	-11%	20%	2,533,787	-1,313,700	-52%
연구 및 현장 임재 (Research & Presence)	233,753	352,580	51%	6%	176,570	+176,010	100%
사회경제 개발/구호 (SED)	397,245	451,316	14%	7%	536,883	-85,567	-16%
합계 (Total)	4,833,439	6,162,769	28%	100%	9,557,337	-3,394,568	-36%

(주: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와 아시아 1 지역의 성경 훈련 하에 제공된 지원 혜택 중 상당 부분은 온라인 방법론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지원 혜택의 대부분은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World Watch List)에 속한 박해받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성경 훈련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혜택의 약 61%가 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의 상당 부분은 앱, 웹사이트, 챗봇 등 온라인 수단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다음으로 큰 부문은 문서/물품 배포이며, 사회경제 개발/구호(SED)와 옹호 사역이 각각 7%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장 임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일부입니다.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 방문 기간 동안 우리는 박해받는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의 연구/현장 임재 수치는 개선된 측정 방법론 덕분에 2025년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성경 및 문서/물품 배포가 52% 감소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 디지털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더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배포는 독립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점점 더 우리 훈련을 뒷받침하는 지원 활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서/물품을 문해력 교육이나 훈련과 결합하는 프로그램 개입 전략의 일환으로 배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성경 훈련이 34% 감소한 것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이 핵심 온라인 사역을 자체적으로 지속해 나갈 동역자에게 이양한 결과입니다. 이 파트너십에 한때 투입되었던 자금은 이제 다른 활동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별 수혜 통계

성별 (Gender)	2025년 계획	2025년 실제	실제 비중 (%)	2024년 실제	2024년 비중 (%)	변동 수치	변동률 (%)
여성 (Female)	1,199,704	2,094,373	34%	3,344,264	35%	-1,249,891	-37%
남성 (Male)	618,970	1,134,483	18%	1,363,582	14%	-229,099	-17%
혼합/미분류 (Mixed)	3,014,765	2,933,913	48%	4,849,491	51%	-1,915,578	-40%

성별 (Gender)	2025년 계획	2025년 실제	실제 비중 (%)	2024년 실제	2024년 비중 (%)	변동 수치	변동률 (%)
합계	4,833,439	6,162,769	100%	9,557,337	100%	-3,394,568	-36%

성별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혜택의 비율은 지난해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2027년 글로벌 필드 보고서(Global Field Report)에서 성별 보고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수혜자 집계 지침이 2026년에 시행되고 있으며, 2027년 보고서는 해당 지침에 따라 성별 데이터를 보고하는 첫 번째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연령대별 수혜 통계

연령 그룹 (Age group)	2025년 계획	2025년 실제	2024년 실제	변동 수치	변동률 (%)
성인 (25세 이상)	818,913	1,241,912	1,157,441	+84,471	7%
청소년 (15~24세)	1,471,482	2,614,473	1,652,502	+961,971	58%
아동 (0~14세)	232,859	234,564	329,642	-95,078	-29%
혼합 그룹 (Mixed)	2,310,185	2,071,820	6,417,752	-4,345,932	-68%
합계	4,833,439	6,162,769	9,557,337	-3,394,568	-36%

(주: 청소년 그룹에 대한 사역 강화로 해당 연령대 수혜가 약 100만 건 가까이(+58%) 크게 성장했습니다.)

박해받는 신자들을 훈련하고, 배포하고, 지원할 때 우리가 진행하는 행사들로부터 데이터를 세분화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습니다. 이는 더 정확한 보고로 이어졌으나,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지원이 온라인으로 전달될 때는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더 많은 강조점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그룹은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100만 명(+58%)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3. 예산 및 실제 지출 현황 (Budget & Actuals 2025)

전반적으로 현장 사역 부서는 제공된 예산의 99%를 집행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예산을 약간 초과했고, 다른 지역은 예산 미만으로 지출했습니다.

2025년 현장 예산은 2024년 실제 지출액에 비해 220만 달러(약 3%)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정 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은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의 2025년 지출이 2024년보다 감소했습니다.

- 표 3.1: 2025년 지역별 예산 대비 실제 지출액 (US\$)

지역 (Region)	2025년 예산 (Budget)	2025년 실제 지출 (Actual)	실제 지출 vs 예산 차이 (Variance)	예산 대비 실제 지출 변동률 (%)
아시아 1 (ASIA 1)	15,514,156	16,213,819	699,663	5%
아시아 2 (ASIA 2)	17,192,232	15,832,027	-1,360,205	-8%
아프리카 & 라틴 아메리카	20,231,987	19,770,688	-461,299	-2%
중동 & 북아프리카 (MENA)	21,277,676	21,757,500	479,824	2%
합계 (Total)	74,216,051	73,574,034	-642,017	-1%

- 표 3.2: 2025년 vs 2024년 지역별 실제 지출액 비교 (US\$)

지역 (Region)	2025년 실제 지출 (Actuals)	2024년 실제 지출 (Actuals)	전년 대비 지출 차 이 (Variance)	전년 대비 지출 변동률 (%)
아시아 1 (ASIA 1)	16,213,819	17,271,850	-1,058,031	-6%
아시아 2 (ASIA 2)	15,832,027	13,780,656	2,051,371	15%
아프리카 & 라틴 아메리카	19,770,688	21,672,409	-1,901,721	-9%
중동 & 북아프리카 (MENA)	21,757,500	23,730,765	-1,973,265	-8%
합계 (Total)	73,574,034	76,455,680	-2,881,646	-4%

지역별 예산 세부 특징

- **아시아 1:** 2025년 예산이 2024년 실적보다 10% 적어 지출 삭감이 불가피했으나, 결과적으로 4% 예산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주로 파키스탄(-52%), 스리랑카(-14%), 아제르바이잔 및 타지키스탄(-13%)에서 절감이 이루어졌고, 투르크메니스탄(+34%)과 인도네시아(+26%)에서는 사역 참여를 늘렸습니다.
- **아시아 2:** 중국(+22%)과 인도(+5%) 등 주요 국가의 사역이 탄력을 받으며 2024년 대비 지출이 늘었으나, 할당된 전체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15%). 자금을 운영 국가로 전달하는 과정의 병목 현상으로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박해받는 실형민과 난민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OAA)로 인해 지출이 20%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은 프로그램 주기 종료로 예산보다 22% 덜 지출했습니다.
-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AFSLAB):** 2024년 실적 대비 140만 달러(7%) 이상의 예산이 감축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24%), 카메룬(-23%), 콜롬비아(-25%)에서 가장 큰 지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반면,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198%)와 멕시코(+40%), 그리고 정부의 공산주의 이념 탄압이 심해진 니카라과(+90%)에서는 전략적 전환을 통해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2024년 실적 대비 240만 달러(10%) 예산이 줄었으나, 2025년 배정 예산보다는 2%를 초과 집행했습니다. 이는 주로 달러와 유로화

의 환율 차이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환율 차이로 인해 지출이 30%(약 1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시리아는 구호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지출이 26%(18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 표 3.3: 지역별 및 사역 유형별 실제 지출 현황 (US\$)

지역 (Region)	옹호 사역 (Advocacy)	성경 훈련 (Biblical Training)	문서 배포 (Distribution)	현장 임재 사역 (Presence)	연구 사역 (Research)	사회경제구호 (SED)	총 지출액 (Total)	글로벌 지출 비중
아시아 1	-	4,054,858	3,523,925	22,456	201,945	8,296,700	16,213,819	22%
아시아 2	605,555	6,103,369	997,251	2,032,135	824,182	5,269,535	15,832,027	21%
AFSLAB	1,846,270	4,818,945	977,297	292,266	2,037,672	9,798,238	19,770,688	27%
MENA	441,759	13,230,865	434,179	220,636	131,196	7,298,865	21,757,500	30%
전체 현장	3,007,519	28,208,037	5,932,652	2,567,493	3,194,995	30,663,338	73,574,034	100%
사역별 비중	4%	38%	8%	4%	4%	42%	-	-

(주: 글로벌 관점에서 매 10달러 중 8달러는 사회경제구호(SED) 프로젝트와 성경 훈련에 지출됩니다. SED 지출의 약 1/3은 AFSLAB 지역이 차지하며, 성경 훈련 지출의 거의 절반은 MENA 지역이 차지합니다.)

4. 글로벌 전략 성과 (Global Strategic Outcomes)

우리의 글로벌 전략 성과는 박해받는 교회를 강화하려는 비전을 추구하면서 기대하는 변화를 높은 수준에서 설명합니다. 아래 표는 프로그램 성과 지표와 지출 비율을 나타냅니다.

• 표 6.1: 글로벌 전략 성과별 수혜자 및 지출 비중

글로벌 전략 성과 (GSO)	2025년 수혜자 수 (#)	2025년 수혜자 비중 (%)	2024년 수혜자 수 (#)	2024년 수혜자 비중 (%)	2025년 지출 총액 비중 (%)	2024년 지출 총액 비중 (%)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3,987,950	64.7%	2,925,937	30.6%	56.9%	53.8%
결코 혼자가 아님 (Never alone)	2,102,234	34.1%	5,974,939	62.5%	39.0%	37.2%
더 큰 참여 (Greater engagement)	16,125	0.3%	8,615	0.1%	0.5%	0.4%
목소리 내기 (Speaking out)	56,466	0.9%	645,307	6.8%	3.6%	8.5%
합계	6,162,775	-	9,554,798	-	-	-

전략 성과별 주요 하이라이트

A) 우리의 글로벌 전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큰 진전으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글로벌 전략 성과는 박해받는 교회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비전을 추구하면서 기대하는 변화를 높은 수준에서 설명합니다. 가장 최근의 전략 단계에서 우리는 각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네 가지 성과 중 하나를 분류했습니다. 그 의도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어떤 성과를 지향하고 있는지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실제 변화가 아닌 의도된 성과만

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성과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하나의 활동이 둘 이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관적인 결정인 단 하나의 성과로만 태깅하는 것은 이야기의 일부분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읽을 때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를 보면 '결코 혼자가 아님 (Never Alone)'과 '목소리 내기(Speaking Out)'에서 벗어나 '소금과 빛(Salt & Light)' 성과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체로 우리가 성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동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기인합니다. 그것이 실제 변화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전략 단계에서는 성과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영향력 (특히 우리의 글로벌 영향력 영역)과 이러한 성과들이 어떻게 상호 강화 작용을 하는지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올해의 경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논의는 성과들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1) 소금과 빛 (Salt & Light)

변화 정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압박에 굴해 후퇴하는 대신,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 성경, 제자 양육 지침서, 옹호 및 박해 대비 자료를 배포하여 신자들이 믿음과 증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경적 기반을 보장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기 (SSTS)'와 같은 대면 훈련 프로그램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현지화된 라디오 프로그램과 제자 양육 후속 조치를 진행했으며, **북한**에서는 디지털 파일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신자들을 지원했습니다.
-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문해력 교실, 우물 파기, 교육 지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회가 지역 사회 복지의 주체가 되도록 포지셔닝했고, 이를 통해 주변 공동체와의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2) 결코 혼자가 아님 (Never Alone)

변화 정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상호 격려와 강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넓은 그

리스도의 몸(교회)에 연결되는 것.

- 2025년 3월 지진이 발생한 **미얀마**와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에게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했습니다.
- 폭력적인 박해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트라우마 치료, 심리 사회적 지원, 안전 가옥, 식량 배급, 의료 지원, 주거 지원, 학자금 및 과부 대상 표적 지원을 통해 신자들과 함께 섰습니다. 후속 방문은 실망을 줄이고 감정적 회복탄력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중앙아시아의 청각 장애인 및 난민들, 그리고 고립 위기에 처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신자들이 돌봄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정체성과 자신감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3) 더 큰 참여 (Greater Engagement)

변화 정의: 모든 곳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그들과의 연결을 통해 스스로의 환경에서 신실한 증인으로서 용기가 성장하는 것.

- 특히 아프리카 같은 환경에서는 비교적 박해를 덜 받는 교회가 더 심한 박해를 받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대하도록 유도하고 참여시키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4) 목소리 내기 (Speaking Out)

변화 정의: 모든 곳의 기독교인들이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자신 있게 사용하여,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적·법적 공간을 넓히는 것.

- 아시아 전역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가자지구에서는 현지 동역자가 라틴 교회 대주교의 방문을 설득하는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부상(Arise Africa)' 캠페인의 일환으로 변호사, 저널리스트, 교회 지도자들과 고위급 자문 회의를 열어 집각적인 옹호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B) 조직적 변화에 대한 성찰: 사람, 프로세스, 시스템, 구조, 문화 등. 이러한 변화 중 어떤 것들이 글로벌 전략 성과(GSO)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 그 이유와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1. 2025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관리 소프트웨어인 '올리브(Olive)'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지역에 첫 번째 버전이 롤아웃(출시)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목적은 현장의 모든 프로그램 데이터를 실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도 우리의 전략과 영향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또 다른 큰 변화는 새로운 **수혜자 계획 및 집계(BP&C, Beneficiary Planning & Counting) 방법론**의 개발과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이 방법론의 목표는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의 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개별 박해 신자들의 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공된 '혜택 수'와 그것을 받은 '실제 수혜자 수'를 구분하여, 한 사람이 여러 사역 서비스나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집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몇 년간은 기존 방식이 축소되고 새 방법이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는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구현되면 각 국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 친교 모임과 연결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고유한 개인들을 지원했는지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와 함께 **특정 종교 박해(SRP, Specific Religious Persecution) 프레임워크**가 완료되어 현장 동역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우리의 현장 사역 프로세스, 표준, 가이드가 박해받는 아동, 청소년, 여성뿐만 아니라 국내 실향민이 된 박해 신자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확실히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C) 프로그램 사역의 변화에 대한 성찰: 프로그램 테마, 타겟 그룹, 운영 국가, 프로그램 전달 방법 등. 이러한 변화 중 어떤 것들이 글로벌 전략 성과(GSO)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 그 이유와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2. 프로그램 사역의 변화 (테마, 타겟 그룹, 운영 국가, 전달 방법 등)

2025년 동안 우리는 '남은 자를 굳건하게 2030(SWR2030)' 2단계(Horizon 2)의 일환으로,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교회(MPC, Most Persecuted Church)에 더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새로운 현장 사역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영향 영역에 집중할 것입

니다.

1) 신규 개종자(New Converts)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살아냄 (친교 모임 및 공동체 안에서)

- 신규 개종자들이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믿음과 이해 안에서 성장함.
- 신규 개종자들이 지역 친교 모임에 정기적으로 기여함.
- 신규 개종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공동체에 참여할 방법을 찾음.
- 신규 개종자들이 이주나 차별에 직면했을 때 믿음과 존엄성으로 대처함.

2) 차세대(Next Gen)가 또래 집단과 사회에 그리스도를 위한 영향을 미침

- 차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들의 박해 환경 속에서成熟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
- 차세대가 또래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함.
- 차세대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함.

3) 가족(Families)이 기독교적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강화됨 (특히 여성)

- 부모와 자녀가 가정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살아내는 일에 연합함.
- 여성과 남성이 안전하고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가정에서 신앙을 공유함.
- 국내 실향민(IDP) 환경에 처한 기독교 가정이 육체적, 영적으로 강화됨.
- 기독교 가정이 박해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됨.

새로운 5개년 전략은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가장 박해받는 이들을 명확히 타겟팅하고 특정 그룹을 우선시해야 하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사역할지, 누구를 우선시할지, 어떻게 개입 조치를 설계하고 구현할지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 전환은 2025년에 시작되었으며, 새 전략과 점진적으로 완전히 일치되도록 2026년과 2027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돕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성숙시켰습니다. **박해받는 교회 위기 구호(PCCR, Persecuted Church Crisis Relief) 기술 핸드북**이 최종 완성되어 모든 지역의 직원과 동역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구호 물품을 있는 그대로 현물 배부하는 대신 현금 바우처 지원(Cash Voucher Assistance)으로 전환함으로써,

단순 구호에서 초기 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직업 훈련이나 소규모 비즈니스 개발 같은 생계 지원을 결합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는 실향민들이 삶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5. 도전에 대한 성찰 (Reflection on Challenges)

2025년 글로벌 전략을 통해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면서 직면한 **가장 큰 3가지 도전과 방해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전 1: 적대적인 환경에서의 사역

지난 수년간 많은 국가에서 교회가 직면한 불안정성과 적대감, 나아가 직접적인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동역자 역시 박해받는 교회 내부의 일원입니다. 불안정성, 치안 악화, 박해가 고조되는 시기에는 이들 동역자 역시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장 사역을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도전 2: 늘어나는 요구 사항

우리 조직은 현재 새로운 수혜자 집계 방법론(BP&C), 새로운 현장 전략, 새로운 소프트웨어 툴링(Olive) 등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점점 더 많은 기술을 요구합니다. 줄어든 현장 예산 속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감당해야 했기에 2025년은 매우 도전적인 한 해였습니다. 현지 동역자를 통해 사역이 진행될 때는, 변화를 수용하고 글로벌하게 합의된 새로운 방향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또 하나의 단계가 추가됩니다.

도전 3: 더 심해진 감시 환경 속에서의 은밀한 사역

우리가 사역하는 더 많은 국가에서 감시 체계가 고도화되고 촘촘해짐에 따라, 박해받는 교회와 우리 직원 및 동역자를 보호하는 일이 점점 더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일부 파트가 노출되거나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강화된 감시망과 맞물려 더 큰 긴장을 초래합니다.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의 은밀한(비공개) 사역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일부 환경에서는 박해받는 교회 스스로가 외부 세계와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 더 조심하고 보수적이어야 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자신들이 노출될 때 발생할 장기적인 파장에 대해 항상 인

지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 **적대적 환경에서의 업무 부하 조절:** 글로벌 차원에서 변화를 관리(Change Management)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픈도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독교적 헌신과 소명을 최우선으로 두지만, 조직의 요구와 포부를 따라잡기 위해 직원과 동역자의 역량 빌딩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 **늘어나는 요구 사항 대응:** 현장 직원과 동역자를 위한 역량 강화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CORE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의 도입은 라인 관리자와 지원 직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감시 환경 속 보안 운영:** 현장 거버넌스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모태 조직(본부)과의 연결 고리가 모호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안전하게 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교훈에 대한 성찰 (Reflection on Learnings)

2025년을 돌아보며 팀이 얻은 가장 중요한 3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재의 힘 (Power of Presence):**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와 단순히 함께 현장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자체의 힘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원격지나 오지에 있는 박해받는 교회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십:**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 동역자들과 모범적이고 견고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사역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이 개발되었습니다.
3. **현지 주도 및 협력 중심 사역의 효과성:** 현지 교회의 강력한 참여, 교단 간의 협력, 그리고 총체적인 지원(심리 사회적 케어 포함)을 바탕으로 이끌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만들어 냈습니다.

부록: 국가별 상세 보고 (Appendix: Country Specials)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 (AFSLAB)

나이지리아 (Nigeria)

-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을 향한 치명적인 폭력의 전 세계적인 에피센터(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박해 관련 사망자의 72%, 납치 사건의 69%, 국내 실향민(IDP)의 50%가 나이지리아에서 보고되었습니다.
- 2025년 동안 우리는 실향민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구호 물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대신, **현금 바우처**를 제공하여 그들의 선택의 자유와 존엄성을 높이고 더 전략적으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이 접근 방식을 직업 훈련 및 농업 투입재 배부와 같은 초기 회복 개입 조치와 결합했습니다. 배부 후 모니터링 결과, 많은 수혜자가 이 새로운 방식이 자신들의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 추가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트라우마 치유와 기도, 목회적 상담, 그리고 성경 배포를 포함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가장 박해받는 개인과 신자들이 고난과 도전 속에서도 다른 신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임재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목회적 돌봄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신앙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수단 (Sudan)

- 수단의 내전은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피난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갈등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1,000만 명의 수단인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 위기 구호(Crisis Relief)에 투입된 특별 기금(OAA) 덕분에, 우리는 수단에서 전년도 3,900명에 비해 훨씬 늘어난 약 11,500명의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국가 내의 치안 불안과 중앙 당국 및 사회의 완전한 붕괴로 인해, 해당 국가 내에서 사역을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멕시코 (Mexico)

- 멕시코에서는 몇 가지 요인 덕분에 2025년에 원래 계획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 지역 공동체에 온라인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위성 활용
- 특별 기금(OAA)의 4가지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된 케어
- 각 주에서 워크숍을 복제하고 해당 지역에서 후속 조치를 취할 협력자 네트워크의 확장
- 멕시코에서의 단계별 대응은 실항민 가족들이 보호소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기간 한정 임대료 지원, 선택과 존엄성을 부여하는 식료품 쿠폰, 공동체 구매 위원회, 그리고 강력한 보건 및 영양 파트너십을 통해 더 큰 안정성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 이러한 접근 방식의 전환 덕분에 우리는 의존성 감소, 학교 재등록률 향상, 공동체의 소유권 및 책임감 증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MENA)

시리아 (Syria)

- 시리아의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수많은 불확실성을 자아냈고,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 20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두 차례의 라운드테이블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새로운 우선순위와 기독교 공동체가 새 정부를 향해 어떻게 스스로를 새롭게 포지셔닝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를 재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열정과 주저함이 섞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 한 해 동안 기독교 그룹과 개인을 향한 수많은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협은 많은 기독교인에게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2일 다마스쿠스의 마르 엘리아스(Mar Elias) 교회를 향한 공격으로 22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한 사건은 깊은 비극이었으며 모든 기독교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시리아에 남은 자들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훈련받은 시리아인 상담사들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현지 팀과 협력하여 트라우마 케어를 제공하는 심리학자 라닌*(Raneen, 가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곳의 치료사들은 사람들이 희망, 힘, 갱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치유와 성장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 트라우마 치료사들에 따르면, 그들은 여성과 아이들이 트라우마 경험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진전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 남은 자들을 강화하는 데는 상담 그 이상이 필요했기에 우리는 생계(Livelihood)에도 투자했습니다. 시리아 전역에서 실시한 248개의 마이크로론(소액 대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박해받는 기독교인 가정에 의미 있고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전략적인 투자는 개인들이 생계를 재건하고, 소득 창출 활동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며,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불안정 속에서도 존엄성과 안정감을 되찾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라크 (Iraq)

- 갈수록 줄어드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들은 전략적으로 그들의 땅을 빼앗고, 직장에서 쫓아내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쿠르드 당국은 그들의 곤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 신앙을 갖게 되는 무슬림들의 작지만 꾸준한 움직임은 희망을 주며, 우리는 온라인 임재와 격려뿐만 아니라 방문 및 제자 양육을 통한 오프라인 격려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이곳에서 박해는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예컨대 야신(Yasin)은 꿈속에서 예수를 본 후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개종은 협박으로 이어졌고, 그를 죽이려 했던 형에게 맞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에 화염병을 던졌고, 마을의 상점들은 그를 보이콧했으며, 아무도 "불신자"를 고용하려 하지 않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개입이 준 영향은 고무적입니다. 그는 성경 구절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입니다.
- 야신은 부족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개종자가 되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지만, 그의 마을 같은 곳에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보통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식의 편지 위협이 흔하게 쓰입니다.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은 "개들이 너보다 낫다"며 모욕을 퍼붓습니다. 때때로 개종자들은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야신은 "우리 상황은 비참하고, 아이들은 우울증을 겪었으며, 직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 그와 그의 가족은 활발한 교회 구성원입니다. 그의 교회를 통해 우리는 그를 실질적으로 지원했으며, 그들의 증거를 강화하기 위해 그의 영적 성장에 투자하는 일련의 훈련(여러 지역의 다른 200명과 함께)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마을 사람 2명을 교회로 데려왔고, 2025년에도 2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 이슬람 율법학자(Mulla)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현재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집트 (Egypt)

- 2025년에도 이슬람 압박 박해 엔진은 이집트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살라프파, 무슬림 형제단, 그리고 열혈 무슬림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내에서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표적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농촌 지역과 마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합니다.
- 법 집행의 부재로 인해 피해 기독교인과 관련된 사건 수가 두 배로 늘어나 그들의 취약성이 가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기한 법적 고소는 현지 경찰에 의해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집트 무슬림 보안 장교들이 피해 기독교인의 편에 서서 급진 무슬림들에게 맞설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 기독교인들을 향한 혐오 발언이 가속화되었고 계속해서 꽤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선동, 소문, 허위 사실 유포가 대인 간 및 온라인에서 계속 순환하며 공포와 소외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는 답변을 게시하면, 이슬람에 대한 선동 혐의로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위성 채널에서 기독교인과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무슬림들에게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 이에 대응하여 2025년에 우리는 교회가 박해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특히 교회가 가장 취약한 지역의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는 노력과 행사를 우선시했습니다. 우리의 행사들은 그들의 교회가 주변 공동체와 다리를 놓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보여주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독려합니다.
- 2025년 라마단 기간 동안,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규모의 많은 교회가 각 지역에서 단식하는 무슬림들에게 교회 안에서 아침 식사(이프타르)를 제공했습니다. 피드백은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현지 교회들의 이러한 지속적인 사랑의 이니셔티브는 현지 모스크의 일부 이맘(Imam)들과의 얼어붙은 관계를 녹였습니다. 이는 여러 공동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괴롭힘을 줄였고, 교회가 가졌던 무슬림들의 의

심을 허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냈습니다.

PSW (특정 보안 지역)

- 지도자를 양육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우선순위의 일환으로 2025년 동안 세미나들이 조직되었습니다. 1월부터 June(6월)까지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 15개의 리더십 개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347명의 참가자가 제자 양육, 성경적 리더십, 박해 하에서의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후 설문조사 및 후속 조치에 따르면 참가자의 90% 이상이 3주일 이내에 배운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참가자가 이 콘퍼런스가 영적인 휴식과 회복의 원천이었으며, 잠시 멈추어 새로워질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몇몇 리더들은 그들의 현지 지역에서 미니 리더십 훈련을 복제하여 수십 명에게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 **박해 콘텍스트:** 우리가 기여한 2025 옹호 보고서는 이란 당국이 두 가지 유형의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 한편으로 아르메니아인이나 아시리아인 혈통의 **공인된 기독교인**들은 대중 앞에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의회 내 정치적 대표성, 교회에 대한 접근권, 그들의 소수 민족 언어로 예배할 자유가 제공됩니다. 비록 개종자들에게 문을 열거나 페르시아어(Persian)로 설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 종교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이란에 계속 구금되어 있던 기독교인 중 최소 5명이 에스닉 아르메니아인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 반면, 공인된 기독교인보다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공인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른바 "안보 위협"으로 비방을 당합니다. 예배할 장소가 없으며, "적대 그룹"의 "불법 모임"이라고 불리는 환경 속에서 그들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갈등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나 종교 활동과 관련된 혐의가 걸린 최소 4건의 재판이 연기되었으나, 양심수들(특히 분쟁 지역과 가까운 구금 시설에 있는 이들)을 일시적으로 석방하라는 요구는 무시되었습니다. 6월 23일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에빈(Evin) 교도소를 공격했을 때, 그 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인원 중 최소 11명의 기독교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습 이후 에빈 교도소가 수리를 거치는 동안 남성 수감자들은 대테헤란 교도소로, 여성 수감자들은 바라민의 카르차크(Qarchak)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 인권 단체들은 두 교도소 모두 심각한 과밀 수용을 포함해 부적절한 환경을 보고했으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수감자들을 대리해 긴급 청원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도소 이송에 연루된 기독교인들은 비참한 환경을 확인해 주었으며, 한 여성 수감자는 수감이 채워진 채 "그렇게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이송되었고, "깨끗한 물과 냉난방이 없고 위생과 적절한 음식이 결여된 채 얇혀 사경을 헤매며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2025년 6월에 발발한 갈등 이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선고와 투옥이 재개되었으며, 11월 한 달에만 최소 4명의 기독교인이 교도소 수감 생활을 시작했고, 2025년 한 해 동안 기독교인들은 합산 총 28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시아 1 지역 (ASIA 1)

방글라데시 (Bangladesh)

- 방글라데시는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77건의 사건을 기록했으며, BMB들을 향한 사회적 압박 상승과 표적 공격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77건 중 24건은 노골적인 살해 협박을 받은 90명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16건은 최소 20명의 신자에 대한 신체적 폭행을 포함했습니다.
- 방글라데시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박해에 대비하는 것에서 장기적으로 인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구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장의 위협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고난을 견디고 신앙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감정적, 사회적,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예를 들어, 한 프로그램은 성경 훈련, 공동체 지원 모임, 긍정적인 지역 사회 참여, 교육 및 생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박해받는 교회를 강화하여 회복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을 구축합니다. 성경 훈련(SSTS)은 여러 번 공격을 받은 가족들을 포함해 반복적인 박해에 직면한 신규 신자들과 MBB들을 강화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 2025년 내내 아프가니스탄의 박해는 극단적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이슬람 의식 참여를 거부하거나 단지 기독교인으로 식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고문, 협박, 주택 급습, 강제 이주에 직면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완전히 지하에서 유지되었으며, 현지 네트워크가 생존을 위한 긴급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성경 훈련 사역이 계획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도달한 것은, 국가 내의 증가하는 제약 속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희망을 찾았기 때문이며, 이는 매일의 라디오 프로그램 및 후속 제자 양육과의 더 큰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도달 범위에 대한 증거는 주로 구도자들과 새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더 많은 전화 통화(아웃리치 및 제자 양육 목적)와,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신약성경의 인쇄 및 배포입니다.
-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숨 막히는 종교적, 문화적 제약으로 인해 여성들은 사회에 의해 더 "보호"되고 대중매체나 심지어 전화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낮아 접근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 국가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며 지속적인 강제 송환 위협에 직면한 이들에게 식량, 주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2 지역 (ASIA 2)

북한 (North Korea)

- 극단적인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발각될 경우 처형이나 투옥에 직면하며, 어떠한 개선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 북한 내의 모든 형태의 기독교 미디어 및 출판물에 대한 정부의 가혹한 처벌 집행으로 인해 사역 팀은 배포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수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 특정 시기에는 검열 그룹(상무)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거리에서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심지어 사택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9조에 따라 "불순"하다고 간주되는 물품을 수색하기도 합니다. 이 법의 엄격한 이행으로 인해 향후 사역 팀은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사본**에 더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 (Myanmar)

- 장기화된 무력 충돌은 더 많은 교회가 폭격을 당하거나 몰수되는 결과를 낳았고, 최소 1,250명의 기독교인이 국외로 도피하게 만들었으며(더 많은 수가 국내 실향민이 됨),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마을들을 표적 삼았습니다. 여러 소식통이 전년 대비 악화되는 실향 상황과 폭력을 확인해 줍니다.
- 3월 28일 만달레이를 강타한 규모 7.7의 지진은 사역 팀으로 하여금 연구와 커뮤니케이션 모두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구호 노력을 극대화하도록 전략을 변

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 변경으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프로그램 지원 혜택 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상당한 양의 시간과 자원이 즉각적인 대응 노력으로 재조정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표적 개입을 구현하는 것을 요구했으며, 필연적으로 다른 계획된 활동들을 지연시켰습니다.

인도 (India)

- 주요 박해 원인인 군중 폭력, 개종 금지법, 정치적 양극화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어 2024년 선거 패배 이후 가졌던 높은 기대감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장 보고는 2025년에 3,200건 이상의 기독교인 신문 또는 구금을 보고했습니다.
- 계획된 프로그램 목표는 훈련 활동을 보완하려는 서적/물품의 인쇄 및 배포를 지연시킨 기술적 문제로 인해 미달되었습니다. 선적 물품은 결국 12월에 수령되었으나,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로 인해 팀이 이를 배포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 인도에서 우리의 현지 동역자들은 2024년에 비해 아루나찰프라데시, 시킴, 트리푸라, 우타르프라데시 같은 새로운 핫스팟 지역의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전에는 덜 연결되었던 공동체로 도달 범위를 확장하여 관계를 구축하고 사람들을 더 밀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거리, 제한된 인프라, 사역의 민감한 성격 때문에 정기적인 방문과 후속 조치가 까다로웠던 오지 지역에 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여러 지역에서 증가하는 박해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신자들은 종종 압박과 정밀 조사에 직면했으며, 이는 때때로 모임을 조직하거나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 각별히 조심하고 사려 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12개 주에서의 개종 금지법은 우리 활동의 이행을 방해했습니다. 현장 파트너들은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마태복음 10:16) 처신함으로써 이 도전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중국 (China)

- 중국에서는 이념적 집행이 확대되었습니다. 당국은 미등록 교회에 대한 급습을 강화하고, 디지털 감시를 굳혔으며, 미성년자의 종교 활동 참여 금지를 지속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교육과 종교를 포함한 삶의 사실상 모든 측면에 공산주의 가치를 주입하려는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 국가의 디지털 규제 확장, 이념적 순응 요구 강화, 미등록 교회에 대한 공격적인

경찰 활동이 지속되었습니다. 더 많은 목회자가 구금되고 벌금을 물었으며 온라인 사역이 축소되었습니다. 중국 팀은 2024년에 비해 지출을 22% 늘렸습니다.

라오스 및 베트남 (Laos & Vietnam)

- 라오스와 베트남은 국가 승인 종교 구조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감시, 체포, 전통 의식 참여 강요에 직면하는 엄격히 통제된 환경으로 남았습니다. 라오스의 마을 당국이 신자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베트남 보안군이 가정 교회 모임을 해산시키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미등록 교회들은 주로 지방 당국으로부터 괴롭힘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오스는 시스템적 압박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72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라오스와 베트남에서 부족 신자들이 그들의 공동체 회관의 파손된 곳을 수리하고, 그들의 겸손한 교회 예산의 일부를 할당해 마을 회의 센터를 위한 의자를 구입하며, 학교 밖 청소년과 문맹 성인을 도움으로써 기초 문해력을 장려하는 등 지역 사회 지원의 작은 제스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라오스는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에 구호 이니셔티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초기 회복 및 재활 훈련을 실시하여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생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북부, 중부, 남부 지역에서 생계 프로젝트가 탄생하여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